

## 육계가격 회복세 지속

지난해 생산비 이하로 형성되던 육계가격이 올해 들어 꾸준한 회복세를 보여 1월 평균 1천3백원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농민들의 입식열기로 육용병아리 값도 지난해말 50원선보다 8배이상 오른 4백원선에 거래되고 있는 등 전반적인 가격이 상승하였다.

이같은 현상은 지난해 닭값이 바닥세를 보일 때 경영난으로 폐업도산한 농가 및 업체들로 인해 공급이 감소하고 본회의 계열주채 및 종계발전협의회에서 공급과잉물량을 줄이기 위해 병아리를 폐기처분하는 등 가격반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겨울철이 되면서 증체량이 떨어진 요인도 있으며 연말

에 집중된 폭설로 인한 수급불균형으로 공급물량이 달리는 문제, 최근에는 질병문제까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1월 중순에 생체 kg당 1천5백원까지 올라갔지만 소폭 내림세를 보여 16일 이후 1천2백원에서 1천3백원사이를 유지하였고 다시 27일에는 1,400원으로 상승하였고 30일부터는 1,600원으로 상승하여 계속 유지되고 있다.

한편, 현재 비축된 냉동 물량이 계열주채포함 총 1천만수에 이르고 있고 올해 최소 시장접근물량 6천5백톤이 오는 6월말까지 수입되고 7월부터 시장이 개방 되는등 앞으로 공급물량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 농림부, 도계장 위생관리요령 고시

농림부는 축산물작업장(도축·도계장) 위생관리요령을 제정 고시하고 오는 3월 2일부터 시행키로 하였다.

이번 축산물 작업장(도축·도계장) 위생관리요령 제정 고시는 국내산 육류에 대한 안전성 향상으로 소비자들이 신뢰를 높여 개방화시대에 우리 축산업을 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축산물작업장의 경영자 및 종사자가 지켜야 할 위생관리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시·도지사 및 관련단체등은 동 요령에 따른 축산물작업장에 대한 위생관리 지도·감독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국내산 육류의 위생수준을 한단계 향상시키는 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특히 서울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동 요령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축산물 작업장 근무 배치전에 축산물검사원에 대한 교육과 축산물검사를 위한 검사장비 등의 확보를 위한 예산을 지원하며 축산물 작업장 경영자는 종사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및 위생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동 요령에는 축산물작업장 책임자와 검사원의 책무를 비롯하여 작업전·후의 위생검사로서 작업장 내외의 일반적인 위생상태와 시설·장비의 청결상태, 종업원의 개인 위생상태를 검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도계공정에서의 일반적인 준수사항과 시설·장비의 세척 및 소독은 물론이고 구충구서관리에 대한 대책 등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문의사항이나 기타 자세한 사

항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부장관(가축위생과), 서울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문의하면 된다.

## 정부, 축산경영자금 5천 2백억원 지원

금년부터 축산경영자금(종전 양축자금)이 사육규모 기준에 따라 구분 지원된다.

1월 25일 농림부는 축산경영자금을 사육규모 기준으로 부업농가를 지원 대상으로 하는 '일반경영자금'과 전업농·준전업농을 대상으로 하는 '전업경영자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3천2백억원, 2천억원등 전년대비 1천억원이 늘어난 총 5천2백억원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금년도 축산경영자금 운용계획을 확정하고 2월말까지 관할 축협에 신청토록 했다.

농림부는 일반경영자금의 경우 지역 축협이 부업농가중에서 대상자를 선정, 농가당 지원 한도를 종전의 8백만원에서 1천만원 늘려 지원토록 했다.

전업경영자금을 일정규모이상의 농가(닭 1만~5만수)와 단지 법인중에서 지역 축협과 축협중앙회의 엄격한 심사 및 평가를 거쳐 농가에 대해 1천만~4천만원, 단지 법인의 경우 2억~3억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농림부가 이처럼 축산경영자금을 일반자금과 전업자금으로 구분한 것은 그동안 양축자금이 가계자금으로 전용되는 것을 생산자금화로 유도키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설을 현대화·규모화한 전업농가들이 운영자금이 부족, 사료·동물약품 등을 외상으로 구입, 고율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경영상 요인을 다소나마 덜어주기 위해 전업자금을 신설했다는 것이다.

## 축산물 안전성 점차 향상

-유해성 잔류물질 양성을 낮아져-

시중에 공급되고 있는 국산 닭고기의 안전성이 점차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국산 쇠고기와 닭고기를 대상으로 항생물질 및 합성항균제 등 유해성 잔류물질검사를 매일 실시한 결과, 양성률이 점차 낮아진 것으로 밝혀졌다.

농림부가 각 시·도 가축위생시험소를 통해 지난해 7월 쇠고기와 닭고기의 시료 2천4백73건을 정성검사한 결과 모두 19건에서 양성반응이 나타나 0.77%의 양성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8월에는 전체 시료 2천28건 가운데 12건에서 양성반응이 나타나 양성률이 0.54%로 떨어진데 이어 9월에는 0.52%, 10월 0.29%, 11월 0.15%의 양

성률을 각각 기록하는 등 양성률이 매월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이처럼 양성률이 매월 낮아지는 것은 그만큼 해당 육류의 안전성이 향상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농림부는 설명했다.

유해잔류물질 정성검사는 육류속에 동물약품인 항생물질이나 합성항균제 등의 성분이 들어있는지를 검사하는 것으로 농림부는 정성검사 결과 양성을 나타낸 지육에 대해서는 출하농가를 추적, 잔류원인을 규명하고 있으며, 정밀정량검사에서 유해물질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면 해당 육류는 일절 식용으로 공급할 수 없도록 돼있다.

## 가축사육수 감소세

-지난해 12월기준 농림부 가축통계 조사결과-

지난해 전반적인 경기불황과 병든소 파문 및 분유 발암물질 검출 파동, 사료가격 상승 등 국내외 악영향으로 축산농가들의 피해가 가중됨에 따라 최근들어 사육수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부가 전국 5천6백여개 표본조사구내 9만1천여호의 축산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난해 12월 기준 '가축 통계 조사'결과에 따르면 각종 축산 관련 논란과 사육여건의 불리함으로 인해 사육수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며 소규모 부업가구는 전·폐업하는 반면 대규모 양축가구는 전업화·기계화로 규모 확대가 이루어

지고 있다고 분석됐다.

이중 닭은 총 8천2백83만수로 전분기보다 무려 8.6%(7백81만5천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다른 축종에 비해 큰 감소 폭을 보였다.

특히 육계는 3천38만1천수로 전분기보다 18.9%가 감소됐고 산란계는 4천6백33만5천수로 0.1%가 감소했으며 겹봉계는 1백31만8천수로 25.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닭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경기불황에 따른 소비위축과 올해 닭고기 수입 완전개방요인 등으로 사육심리가 크게 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최근 5년간 가축사육 동향은 전 축종에 걸쳐 마리수는 증가추세이나 지난해 들어서는 경기불황과 사료값 인상 및 광우병 등 각종 위생문제 논란 등의 요인으로 12월들어 사육가구수가 더욱 큰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녹색 하우스로 사육기간 단축효과

최근 이스라엘에서는 녹색계사를 이용해 가축의 품질향상과 생산기간단축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육계의 경우 성장속도가 약 10%정도 단축되었다고 한다.

이스라엘의 키부츠중 하나인 에레즈키부츠에서는 유색 하우스 피복자재를 이용해 생산성을 높이는 연구를 추진하고 있는데 태양광선에 섞여 있는 붉은 빛은 가축이 공격적이 되게 하고 신경질을 잘 내도록 하는데 반해 녹색은 편안한 정서를 갖게 해준다고 한다. 그로인해 육계의 경우 성장호르몬 분비가 촉진돼 통상 42일 걸리는 사육 기간이 39일로 단축되어 성장속도가 약 10%정도 개선되었다고 밝혔다.

## 본회 회원 계속증가

올해 들어서도 계속 회원가입 신청 및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1월중에도 노계전문 도계장 진성식품(주)가 정회원(가금처리분과)으로, 이화약품(주)가 준회원으로 가입되어 1월말 현재 정회원 32개사 대표(통합계열분과 12,가금처리분과 20), 준회원 40개사 대표, 특별회원 24명으로 총 96명으로 집계되었다.

## 세계 닭고기시장 성장추세

-96년 미국·중국중심 6%성장-

세계 닭고기 시장이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고 미 식량 및 농업 정책 연구소가 밝혔다.

세계 닭고기 생산량은 지난 94년 8%의 성장세를 기록한데 이어 95년 3%의 신장세를 나타냈고 96년들어 구소련과 동구 유럽국가들의 생산량이 50%가량 줄어든데에도 불구하고 6%에 이르는 성장세를 지속했다.

세계에서 가장 닭고기를 많이 생산하는 나라는 미국으로 전세계 닭고기 생산량 4천4백50만톤 중 31%를 점유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중국이 17%를 점유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1인당 닭고기 섭취량이 45kg에 이르는 기록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자국내 수요도 증가하고 있지만 수출량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중국의 경우 지난 3년간 1인당 닭고기 소비량이 6kg에서 12

kg으로 두배 가까이 성장했으며 앞으로 주요 닭고기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Feed Stuff지는 지난 90년부터 97년까지 미국의 닭고기 생산량 증가분은 4백60만톤, 수출량 증가분은 1백86만6천2백톤에 달할 것이며 예상하면서 생산량 증가분의 40% 정도가 수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리고 96년에는 95년에 비해 18%증가한 1백99억6천4백만톤을 수출했으며, 97년에는 4억5천만톤이 더 수출돼 총 2백4억1천4백만톤이 수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 농무성에서는 이같은 수출 증가의 원인으로 미국산 닭고기 수출시장의 45%를 점하고 있는 구소련 지역의 닭고기 수입 급증을 들고 있으며 또한 95년보다 수출량이 2배이상 늘어난 중국도 새로운 수출시장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계속사업대상업체 2개소에 22억7천3백만원, 기존사업 보완을 위해 11억8천3백만원 등 총 75억4천6백만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둘째, 도계장에 가축수송차량과 닭 수송용기를 세척·소독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지원하여 농장간 질병전파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도계시설개선사업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계열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장, 도축·도계 물량이 많은 사업장, 자체 수송차량을 확보하고 주간도계를 실시하는 사업장, 작업장 시설을 현대화한 업체, 위생시설을 현대화한 작업장에 대해서 올해 10개소에 28억3백50만원을 차량세척, 소독시설, 수송용기, 수송용기 자동세척 등의 시설에 지원한다.

셋째, 도계시설의 현대화로 위생도계육공급 및 계육 유통구조 개선과 도계과정에서 발생하는 털, 내장등 부산물의 적정처리로 환경위생 기여 및 부산물을 자원으로 활용 할 목적으로 도계장시설현대화 및 도계부산물처리를 하고자 하는 도계장에 대해 96년에는 9개소에 34억1천만원이 지원됐고 올해는 5개소에 24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넷째, 종계 자질개량 및 경제능력 향상, 우량종계도입 유도 및 양계농가에 종계선택지표 제공, 닭고기 수입자유화에 대비한 양계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올해는 42개소에 3억3백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검정소 검정과 일반검정이 병행 추진되고, 검정방법의 검정화, 전문요원의 전문화, 검정시설 및 장비의 현대화 및 검정결과의 공표를 통한 양계농가의 종계구입 편의를 도모토록 하고 있다.

## 육계산업 계열화 중심으로 육성

-계열화사업 23개소 집중지원 등-

정부는 육계산업 육성방안으로 계열화사업 23개소 집중지원, 도계장 시설 개선 및 종계 자질 개선 등 4개 사업에 대한 집중지원을 실시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닭고기 계열화 사업을 2004년까지 23개소에 집중 지원한다.

닭고기의 생산, 가공, 유통, 판매 등 전 과정을 계열화를 통해

국내 닭고기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시행된다.

96년까지 16개 업체에 지원되었으며 97~98년동안 4개소, 99~2004년 3개소 등 총 23개소에 집중 지원된다.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계열화사업에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올해 신규사업으로 3개소에 40억9천만원, 내년까지

# 중국 2000년 곡물 3천2백만톤 수입

-자금을 91%로 하락, 세계 수급 혼란예상-

최근 2~3년사이 곡물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전락한 중국의 식량자급률이 오는 2005년 안에 91%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농무부 경제 연구소의 최근 보고서(중국 곡물시장의 장래)에 따르면 앞으로 10년간 중국의 식량자급률은 국내 수요증가에 못미쳐 91%까지 낮아지고 육류수입국으로 전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또 오는 2000년에는 곡물수입량이 3천2백만톤으로 95년의 1천6백만톤의 두배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

다.

오는 2000년 중국의 수입 물량 내역은 보리가 1천8백20만톤으로 95년에 비해 6백20만톤이 늘고 옥수수는 1천1백만톤으로 9백만톤, 쌀은 1백10만톤으로 20만톤 늘어나고 육류는 2000년부터 수입국으로 전환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미국 월드워치연구소 '레스터 브라운'소장은 중국의 대량 식량수입국 전략은 세계적으로 곡물수급의 혼란을 초래, 큰 문제로 부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 역시 부셸당 7.25센트가 오른 2.655달러에 거래됐다.

그러나 밀은 그동안 이식매물이 나와 3월 인도분이 부셸당 2.25센트가 내린 3.87달러에 거래됐으나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한편 콩과 옥수수의 경우 재고량이 예상보다 적어 이미 물량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콩은 수확기인 9월까지 가면 재고량이 20년이래 최저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미 농무부는 겨울밀의 경우 올해 미국 중서부 대평원의 가뭄과 주산지인 캔자스지역 등의 호우현상이 지속된데다 밀농사를 시장기능에 맡기기로 한 이른바 자유농업법에 의한 첫과중이어서 올해 재배면적이 4천8백20만에이커로 지난 겨울의 5천2백만에이커에 비해 7%나 줄었으며 이는 지난 78년이후 최소 면적이라고 밝혔다.

또 콩은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기후불순으로 생산이 순조롭지 못한데다 미국내 생산도 작년 12월 추산보다 2천1백만 부셸이나 적은 23억8천만 부셸에 그칠 전망이다며 미국의 재고량도 9월 1일 기준 1억2천5백만부셸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보았다.

옥수수는 9월까지 새로운 공급량이 9억5천9백만부셸에 그칠 전망이다며 소비는 크게 증가, 물량이 빠듯할 것으로 예상했다.

## 국제곡물값 급등

-시카고 시장 밀, 콩, 옥수수 상승세-

국제곡물시장의 가격을 주도하는 시카고 곡물시장의 밀과 콩, 옥수수 가격이 세계적 기상이변과 파종면적 감소 등으로 급등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양곡자급률이 30%도 안돼 밀과 콩은 물론 사료용 옥수수를 거의 모두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클 전망이다.

1월 10일 미농무부가 올해 재배면적 감소와 기상 영향으로

밀, 콩, 옥수수의 생산량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한 직후 개장된 시카고 곡물시장에서 이미 상승세를 계속해온 콩과 옥수수 가격을 더욱 부추겨 종일 큰폭의 오름세를 유지했다. 그동안 큰폭으로 상승한 밀은 이식매물이 나와 다소 약세를 보였으나 거래량은 크게 증가했다.

이날 콩은 1월 인도분이 부셸당 30.75센트나 오른 7.265달러에 거래됐으며 옥수수 3월 인도

### 신입직원 모집

본 회는 신입사원(취재 기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한다.

1. 대상
  - 발전하는 계육산업의 일익을 담당할 자
  - 현재의 미약함보다 미래의 창대함을 추구하는 자
2. 자격
  - 축산업 관련학과 졸업자 (전문대졸 이상)

3. 필요서류
  -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자필로 A4용지 2매이내)1부
  - 학과장 추천서
4. 마감일: 97.2.26(수) 16:00
5. 면접일: 개별 통보
6. 연락처: 한국계육협회 (Tel: 536-9855~6)

## 화이트 미트의 시대!

KS닭고기회사

하림이 열었습니다.



국내 최대 닭고기 전문회사

(주) 하림 HALIM & CO., LTD.

# DHA 다량 함유 '슈퍼 닭' 사육기술개발

축산기술연구소, 아마씨앗 먹여 생산

DHA가 전혀 들어 있지 않은 아마씨앗을 먹여 DHA가 다량 함유된 닭을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사육기술이 개발됐다.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는 28일 DHA성분이 전혀 없는 아마씨앗을 사료에 섞어 먹여 DHA함량이 일반 닭보다 4배 가량 높고 오메가-3계열 지방산은 약 85.7%증가한 '슈퍼 닭'을 생산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오메가-3계열 지방산 DHA와 EPA, 알파 리놀렌산 등으로 구성된 기능성 물질로 이 가운데 DHA성분은 두뇌발달, 성인병, 노인성치매 등 혈액순환기계통의 질병예방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미 유채와 들깨씨앗, 어분을 섞어 만든 사료를 장기간 다량 공급해 DHA닭을 길러내는 사육기술은 있었으나 원가가 워낙

비싸고 생산성도 좋지 않아 일반농가의 호응을 얻지 못했다.

그러나 아마씨앗만을 사용한 이번 사육법은 출하 2주전부터 전체 사료중 아마씨앗을 3% 가량 섞어 먹여 생산비는 기존 DHA닭보다 20%이상 절감되고 체중은 비슷한 시기에 부화된 닭보다 5% 이상 더 늘어나는 효과를 얻었다.

이번 사육기술은 또 아마씨앗에 천연 항산화제인 비타민 E와 소량의 복합 항산화제를 첨가, 생산된 DHA닭고기의 신선도를 오랫동안 유지시켜 유통기한이 짧았던 기존 닭고기의 단점도 보완했다.

축산기술연구소는 사육기술이 비교적 간단하고 생산비도 저렴해 특허출원을 마친 뒤 농가에 보급될 경우 닭 사육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각광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림은 이를 통해 전체 병아리 소요마리수의 약 80%를 자체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현재 주당 1백만마리에 머물러 있는 병아리 마리수를 1백50만마리까지 늘린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하림은 또 최근 품종이 바뀌면서 육성이 제대로 안된다는 일부 농가들의 항의에 대해 '최근 강추위로 육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다 빨리 크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적인 경우로 질병에 쉽사리 노출되는 부작용도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 라인농산, 계열화사업 차질

라인농산이 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의 지연으로 닭고기 계열화 사업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

라인농산은 정부로부터 95년 사업비 48억5천1백만원을 융자 받은 것을 비롯 24억5천8백만원의 자비를 들여 총계 및 부화장 6개동 1천9백여평, 육계사 20개동 7천2백평 규모의 닭고기 계열화사업을 위한 제반 시설을 건립중에 있다.

그러나 부지의 일부가 진흥지역으로 묶여 지난해 6월 신청한 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이 아직 까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남 장성군청측은 진흥지역의 경우 국토이용 계획 변경때 농림부장관의 승인까지 거쳐야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따라 사업이 지연되는 등 95년 사업비 명목으로 받은 지원자금중 미집행액 4억1천4백만 원을 불용처리하거나 97년으로 재이월 조치해야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 하림, 종계품종 「하이브로」로 전환

하림이 종계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품종을 코브에서 하이브로로 전환, 앞으로 하이브로 품종이 닭고기 산업을 대표하는 품종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세계 최대의 계열주체인 미 타 이슨사의 계열사로 알려진 코브 벤트리스사와 지난 89년 8월, 15년에 걸친 원종계 장기 공급계약을 하였으나 올해부터 네덜란드 뉴트레코사의 계열사인 유리브리드사 하이브로 품종을 선택하였다.

하림 종계부에 따르면 자체 분석 결과, 하이브로의 종계 생산

성이 약 85%에 이르러 코브 품종보다 20~30%정도 높다고 판단돼, 기존 코브 품종 위주에서 하이브로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

하림은 최근 자체 종계생산성을 향상시켜 병아리 생산비용을 최소화한다는 경영전략을 세우고 전체 병아리 생산마리수 중 약 20%, 1주당 20만마리 정도를 새로 도입한 하이브로 PS를 통해 생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올해 안에 하이브로 GPS 2만4천마리를 수입, 98년이후 하이브로로 품종을 완전히 바꾼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 뉴캐슬(ND)박멸위해 정부 나서

- 15억달러 부화 1일령에 무상 분무접종 -

정부는 뉴캐슬병(ND)박멸을 위해 전국의 등록된 부화장을 대상으로 ND분무백신을 무상 지원한다.

오는 3월부터 실시예정인 뉴캐슬병 예방주사 사업은 축산업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거 등록된 부화장으로 전동용 백신 분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부화장에 공급하게 되는데 등록부화장 중 시도 확인점검결과 차량과 소독설비를 갖춘 부화장 중 위생상태가 양호한 곳으로 시군 공공방역실시단에서 사업단 관할 농가에 분양예정인 초생추에 접종하고자 신청한 부화장에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분무기 선택은 분무입자 크기가 50~100 $\mu$ m의 점중에 효과적인 분무기를 필히 갖추고 있어야 하며 예방약 선정은 구입비용과 효과측면을 감안해 농장에 알맞는 제품을 선택해 접종할 예정으로 예방약은 수당 5원 이내로 국비에서 100% 지원한다.

이를 위해 각 시도에서는 자체적으로 지역 수의과대학 교수, 양계질병 전문가, 계열주체, 부화업체, 양계조합, 가축위생시험소 관계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여건과 농장의 환경여건에 적합한 예방약이

선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한편 정부는 효율적인 ND박멸을 위하여 ND생독백신 분무접종요령을 배포해 분무기의 선택, 백신희석액, 백신의 농도, 분무시간 및 분무실 조건, 접종실의 환경조건등을 지도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접종 부화장 경영자는 수의과학연구소 또는 가축 위생시험소 등 관계기관 전문가로부터 분무접종 기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부화장에서는 초생추에 ND백신을 접종 해 분양하면 각 육계 농가에서는 필요한 추가접종을 꼭 실시하여 금년도 이후 국내의 ND발생이 최소화 되어 경제적인 피해를 줄여야 할 것이다.

이 사업에는 연간 15억원(3억 수분)이 소요되며 3월부터 금년 말까지 지속적으로 시행된다.

시도별 배정량은 부산 30만수, 대구 1백만수, 인천 30만수, 광주 1백만수, 대전 2백만수, 경기 9천만수, 강원 4백50만수, 충북 2천만수, 충남 9천2백40만수, 전북 6천만수, 전남 9백만수, 경북 1천3백만수, 경남 6백만수, 제주 50만수분 등이 배정되었다.

# 파파이스 고속성장 지속

지난해 치킨외식업계는 파파이스의 팔목할 만 한 성장과 KFC의 안정세에 따른 저성장으로 업계의 판도변화를 가져왔다.

KFC는 지난해 1천2백억원의 매출을 기록, 업계 매출 1위를 기록했지만 매출증가율은 10% 정도에 그친 반면 파파이스는 4백50억원의 매출을 올려 2백60%의 매출 증가율을 기록했다.

점포수에 있어서도 KFC는 지난해 10개가 늘어난 110개에 그친 반면 파파이스는 40개가 늘어난 72개를 확보했으며 올해에도 계속 확장하여 150개를 확보할 목표를 세우고 있다.

점포당 평균 매출에서는 KFC가 지난해 10.9억원을 기록했으나 95년과 같은 수준에 머물렀고 파파이스의 경우 지난해 6.3억원으로 전년대비 26% 증가하였다.

올해의 매출은 KFC가 17% 성장한 1천4백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파파이스는 120% 성장한 9백90억원을 계획하고 있어 올해에도 파파이스의 약진이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미원마니커의 별도법인인 제너시스의 BBQ가 일반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2백호점을 돌파,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 (월간 식당)

깨끗하고  
신선한 닭고기-



MIWON 미원마니커주식회사

신선하고 깨끗한

HAIMARROW

해마로치킨

Chicken



(주) TS해마로식품

TS HAIMARROW FOODS Co., Ltd.

## 농림부 장관 화인코리아 방문

### -삼계탕 수출 활성화-

지난 1월 24일 정시채 농림부 장관은 삼계탕 생산 전문업체인 (주)화인코리아(대표 나원주)를 방문하여 시설을 둘러보고 정부의 지원을 약속하였다.

정 장관은 "우리 농업이 선진국대열에 진입하려면 농산물도 수출을 해야한다. 삼계탕 수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삼계탕이 외국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품질좋은 제품 생산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90년 초생추 생산, 사육, 도계, 가공, 유통의 전과정을 일원화한 삼계탕열화 사업을 시작, 삼계탕 생산 전문회사로 성장한 (주)화인코리아는 삼계탕을 현재 일본·대만·싱가포르·프랑스 등 14개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30여개국과 수출상담중에 있다. 지난 93년 35만달러, 94년 50만달러, 95년 53만달러, 96년 40만달러 어치를 수출했으며 올해는 4백15만달러어치를 수출할 계획이다.

(주)화인코리아는 삼계전문회사로서 다년간 쌓아온 경험과 노력을 바탕으로 삼계탕 통조림을 비롯 즉석삼계탕 파우치, 냉동삼계탕, 즉석도리탕, 영계삼계탕 선물세트 등 다양한 가공용 삼계탕제품을 개발해 국내시장은 물론

세계시장에 수출하고 있다.

## 화성식품 '주식회사동우'로 변경

화성식품(주)가 지난 1월 25일자로 '주식회사동우'로 회사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연락처는 전화:0654-450-2000~9, 팩스:0654-451-0101로 변경되었다.

(주)동우는 지난 96년 8월에 네덜란드 STORK사의 최신설비를 갖추고 현재 1일 6만~8만수 규모로 작업을 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자동내장적출설비(NU-TECH SYSTEM)를 갖추고 있다. 또한 생계투입라인에 있어서 최초로 덩핑시스템을 도입하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고, 현재 3월말 완공예정으로 1일 12만수 처리규모의 랜더링 설비공사를 하고 있으며 공해방지장치까지 계획하고 있어 도계장에서 나오는 폐자원을 재활용하며 환경기업으로서 손색이 없도록 사업을 전개할 전망이다.

## 한국축산학회 제2부회장에 정선부 박사

본회 자문위원인 축산기술연구소 중축개발부 정선부부장이 한국축산학회 제2부회장에 선출

됐다.

한국축산학회는 지난해 12월 회원에게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발송, 지난 13일자 우편소인이 찍힌 3백15통에 대해 17일 학회 사무실에서 개표한 결과 정선부 부장이 선출되었다.

## 체리부로 서울사무소 이전

체리부로식품(주) 서울사무소가 2월 4일자로 서울 역삼동에서 양재동으로 이전하였다.

주소와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주소: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09-3호 양재빌딩 30호 (우:137-130)

\*전화:(02)574-8385~7

\*팩스:(02)574-8380

## 닭고기 소비 촉진 홍보

본회의 닭고기 소비촉진 홍보사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어 이의 효과가 서서히 거양됨에 따라 업계에서 '97닭고기 소비 촉진 홍보비를 자발적으로 납부하고 있다.

97. 1. 31까지 본회에 보내주신 '97홍보비는 다음과 같다.

(주)하림(대표 김흥국)	16,560,000원
전북양계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이기동)	1,000,000원
(주)중원농장(대표 배선체)	1,000,000원
(주)신기(대표 이상수)	1,000,000원
계	19,560,000원

# 에 이 비 안

대한양계협회 능력검정 '94, '95, '96 3년 연속 1위!  
에이비안은 목계농장 계열주체 에 더 많은 이익을 드립니다.



영업부 TEL.(0417)587-7792, FAX.(0417)554-0771

# STORK® 세계 최대 최고의 Meat Group

STORK PMT 도계설비 (Nu-Tech 내장적출)

STORK Rendering 부산물 처리

STORK Protecon 육가공 설비

STORK Titan 식품가공 설비

STORK Aqua 오, 폐수 처리



한국내 총대리점  
(주)유경축산

Tel (0357)31-6073

Fax (0357)31-9353